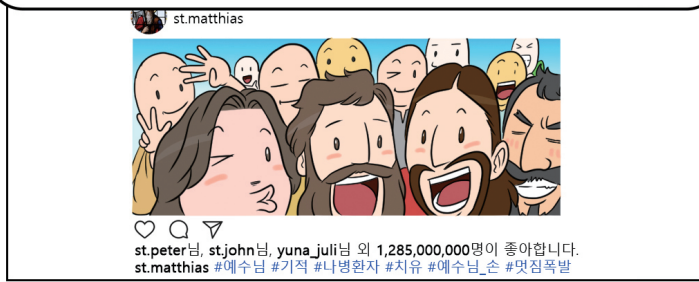




예수님께서 직접 선택하신 제자가 아니라 배반한 유다 이스카리옷의 빈 자리를 채우기 위해 뽑힌 사도였습니다.
예수님께서 12사도를 선택한 것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염두에 둔 포석이었습니다.
따라서 스승을 떠난 유다의 자리를 채우는 것은 시급한 일이었습니다.



이렇게 볼 때 마티아는 공생활 초기부터 예수님을 따라다녔음을 알 수 있습니다. 다른 제자들과 함께 가르침을 받았고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까지도 목격했던 분이었습니다.



사도단에 합류한 뒤 유대지방, 이집트, 에티오피아, 카파도키아 등지에서 선교하다 차츰 북쪽으로 나아갔습니다. 말년에는 콜키스(오늘날 조지아에 속한 땅) 지방에서 선교하다 그곳에서 순교했습니다.

